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및 활용 -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성 탐색

조사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0월

핵심단어 | 직업성 급성중독,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조사배경

- 국내 산업보건 관리제도는 체계화된 산업보건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급성중독과 직업성 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직업성 중독과 손상이 발생하면 재해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 큰 혼란과 비용을 유발한다.
- 직업성 중독은 산업보건영역에서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직업성 손상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특성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기존에 구축한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를 심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성 손상에 대한 감시체계 구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조사내용

조사결과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를 운영한 결과 사례는 총 268건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6.5%를, 연령대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중요성이 높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8.4%로 가장 많았고, 질환별로는 신경계 질환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유해요 인은 유기화합물이 19.4%로 가장 많았다.
- 4년간 직업성 급성중독 주요사례는 일산화탄소 중독, 밀폐공간 내 황화수소 중독, 도금사업장의 시안화물 중독 등이 있었고, 많은 사례는 영세한 작업장에서 발생하 였으며, 영구적 장해 등 심각한 질환이 아닌 이상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성을 위해 국내외의 손상 감시체계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결과,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손상감시체계는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학술적인 방식으로 직업성 손상 예방 정책 생산에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지역감시센터를 운영한 연구 참여기관의 2020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자료 분석 결과, 직업성 손상환자는 남성이 90.9%이었고, 연령대로는 50대가 37.4%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35.4%를 차지하였고, 손상기전으로는 추락 및 미끄러짐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손상 발생 장소는 공장, 산업, 건설시설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보험유형은 산재보험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손상부위는 두부가 23.2%로 가장 많았다.

시사점

- 밀폐공간 중독 및 질식 사고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 폐공간이 있는 원청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직업성 손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보고, 적시 중재조치, 사 후관리 및 예방 정책 생산을 위해서 통합적인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성이 필요하 며, 현시점에서는 병원 자료 기반 감시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활용방안

제언

- 산업재해의 특성상 숨겨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의료기관 임상진료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례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도 불가함 따라서 기존의 산업보건체계 보다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감시체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자율적 능동보고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자료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와 지역감시체계에서 수집 하는 병원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성 손상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산재통 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완한다면 직업성 손상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감시 체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과 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활용방안

- 산업보건 전문가와 임상 의료진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업성 급성중독 의심사례를 조기에 확인하여 의학적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중재조치 및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병원 자료 기반 감시체계인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산업안전보건에서 필요한 내용을 결합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처

조사책임자 | 가천대학교 최원준 교수

조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성정민

연락처 | 032-510-0750 e-mail | sjm7@kosha.or.kr